

## 韓日 순례문화 교류 세계평화 증진 선언

### 33차 한일불교교류대회서

한일 불교계가 양국 순례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결의했다.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우호와 화합도 약속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시코쿠 젠쓰지(善通寺)에서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열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성지 순례지의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세계평화기원법요식, 환영만찬, 도쿠시마 다이나미지(大日寺) 성지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6월 26일 열린 세계평화기원법요식 대화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는 만남의 의미를 넘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주제인 '불교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와 종단 간 교류, 사찰간 교류, 개인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중 교류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대화사에서 "일한 양국이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우호친선의 유대를 깊게 하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공생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고미네 야케 일본 대정대학 교수가 '성지순례지의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뒤 참가대중들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전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장사, 김재경 국회의원(국회 정책위원회) 등 한일 불교계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가했다.

신종일 기자



도심 속 사찰 문화 강좌 열기가 뜨겁다. 6월 26일 조계사 불교대 통기타반 강좌 현장. 조계사는 현재 17개 강좌에 400여명의 회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절집 문화강좌 인기 '이유 있네'

### 사찰분위기가 학습효과 높여...일반인도 시선집중

"요가나 라인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비싸서..." "다도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문화강좌를 배우고 싶어 나섰지만 비용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마땅치 않아 망설이던 불자라면 근처 사찰을 찾아가 보자.

사찰이나 부속 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요즘 인기다. 요가, 불화, 다도, 노래교실 꽃꽂이, 오키나와 배우기 등 개설된 강좌 종류도 수십종에 달해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수강료도 시중보다 비교적 저렴해 특히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 강사진이나 강의 내용도 결코 유명백화점이 나 일간지 문화센터보다 뒤지지 않는다.

문화강좌가 대표적으로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서울 종로 조계사다. 10여년째 운영중인 조계사 문화강좌는 현재 17개 강좌에 4백여 수강생이 듣고 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국악기와 풍물 배우기 등 전통 강좌 중심으로 개설했지만 차츰 수강생이 늘면서 그들의 기호에 맞는 강좌를 늘렸다. 현재 인기 강좌로는 요가(130명), 불화(1백명), 다도(1백명) 등에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조계사 교육조직국 박금문 주임은 "문화 강좌를 열어 일반 시민들

에게 절을 개방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문화강좌를 들으러 왔다가 절과 친숙해져 신도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사찰의 문화강좌 대부분이 불교교양대학의 부설강좌인데 반해 서울 회기동 연화사는 아예 문화센터란 공간을 갖고 차별화시켜 더욱 인기가 높다. 5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

### 요가, 불화 등 강좌 다양

### 수강료 시중보다 저렴

### 사찰 봉사활동서 실력 발휘

### 포교로도 이어져 긍정적

는 연화사 문화센터는 인근 지역에서도 원정을 오는 등 매학기 수강생들로 북적인다.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은 "보통 절에 와서 법회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마련인데 문화센터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사찰에 오면 애들만 머물러 있다"며 "이런 이들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도가 되는 등 포교와 연결이 됐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또한 스님은 "문화강좌의 성과는 실력과 전문성 있는 강사진 섭외에 달려 있

다"며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현재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가 뭔지 살펴서 다양한 강좌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화사 문화센터에서 수료한 수강생들로 구성된 사르나트(라인댄스)봉사단은 전국생활체육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아 매년 지역축제의 단골손님으로 초청되기도 한다.

봉은사 강민수 홍보팀장은 "강좌가 단계별 수준에 맞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강사도 섭외하고 수강생도 모집해야 문화강좌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금방 강좌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근 사찰과 연계해 그룹별로 함께 기획하고 홍보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카리나 배우기, 사찰음식 강좌 등을 열고 있는 은평구 진관사 총무원법 스님은 "사찰을 처음 찾은 수강생들은 불교를 이질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를 통해 불교를 접하다보니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교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은 문화강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신도 포교로도 이어지는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원문기사 5면**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창조론·교회 사역, 정권 업었나?

### 특정 종교, 사회 공공성 침해 연이어 '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진화론 삭제와 사람의 교회 신축공사 공공도로 점유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 등은 공통점을 가진다. 두 가지 모두 특정 종교가 사회 공공영역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려는 창조론자들의 노력은 30여 년간 계속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일부나마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은 독실한 개신교인인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창조과학회는 대형교회들 외에도 개신교 영향권 대학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왔다. 한국 최고 과학수재들이 모여 있는 국립대학 KAIST 경우는 창조론을 비롯한 개신교의 입김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KAIST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창조과학관에 대한 공간을 제공해 빈축을 샀다. 주대준 KAIST 현 부총장의 경우 청와대 경호처장 재직 시절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한 인물이다.

사람의 교회 신축공사 역시 정교 유착이 이뤄지지 않고는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사례다. 실제 대법원은 2008년 '특정 종교시설의 경우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이므로 편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애초 사람의 교회 신축공사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허가된 것이다.

### 창조과학관, KAIST에도 침투

### 사랑의 교회, 서울시에 '몽니'

### 반대 측 '반기독교 세력' 규정

### 시민 의식 성숙이 해결 열쇠

사람의 교회 감사청구 준비위원회 황일근 대표(서초구의원)는 "제보에 따르면 사람의 교회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세력을 '반기독교 집단'으로 간주하고 종교간 재직 시절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한 인물이다.

### 895호 INDEX

- 중단 조계종교육원 청구제정 좌담회 2
- 종합 개신교, 종자원 흡집내기 2012 여름 템플스테이 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무산 3
- 시방세계 도심속 사찰 문화강좌 열기 5
- 학술·문화계 간화선 국제 학술대회 9

### 새 연재 14면

### '부처님 10대제자에게 배운다' 첫 회

### 사리불존자



"이 '이렇고?' 는 이렇고?" 고요해야 할 산중의 언어 '이렇고'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바로 내려왔다. 6월2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은 타악퍼포먼스 '이렇고' 공연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7월 1일까지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스님이 감동하고 사찰의 사물(四物)을 악기로 사용한 공연이다. 이날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앞쪽 두번째)과 포교원 교역직 스님들, 총무원이 공연을 관람했다. 관람을 마친 지원 스님은 "다양한 포교가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공연이 신선한 문화포교의 정을 열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현대불교신문사·사찰조경연구소 공동 캠페인

### '렌즈 속 현장-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은 귀의처이자 수행처입니다. 그래서 가깝 곳에는 향기가 피어납니다. 또한 절은 불교문화와 한국전통미의 산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어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사찰조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카메라 속에 비친 '렌즈 속 현장-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렌즈 속에는 예쁜 모습도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도 모두 담길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진과 일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02)2004-8251, wanhollo@hyunbul.com

불상은 왜 금색일까?  
탑의 층수는 왜 홀수일까?  
부처님의 수염은 왜 파란색일까?  
관세음보살은 여성일까 남성일까?  
도대체 절에는 왜 담도 없는 분이 있는 걸까?  
동지에 왜 절에는 달력을 나눠줄까?

100개의 문답으로 풀이낸

# 사찰의 상징 세계

(상·하)

금주현스님

틱낯한, 헤민 스님이 추천한 심리치유의 바이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 받아들임

교보문고 에스24 인터파크 심리학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Radical Acceptance 한국어판!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할 필요 없이요. 그저 지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헤민 스님

타이틀 표제 8권  
김선우·김정호 옮김  
19,800원

상하 각 320쪽, 312쪽 | 윌리엄스  
가격 각 22,000원

www.bulkwang.com